

2007년 경제전망과 주류산업



심영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 - 2007년 경제를 보는 눈

2007년은 매우 중요한 해이다. 국가적으로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이자,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위한 산고를 겪는 해이다. 지나간 일들을 평가하고, 앞날의 비전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기이다. 마침 2007년은 외환위기를 겪은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OECD 가입과 외환위기를 계기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탈바꿈하고자 했지만,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장도를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이기도 하다. 만일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2007년은 우리 경제가 또 한번 질적인 변신과 성장의 모멘텀을 맞이하는 해가 될 수도 있다. 2만 불 달성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분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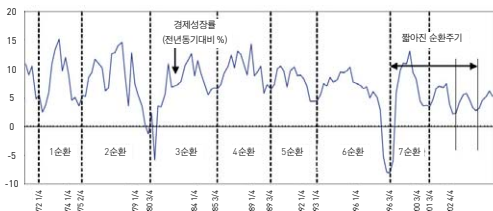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도 초반의 탐색을 마치고 21세기의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경제, 산업, 통상, 자원, 환경, 과학기술 등 제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열강들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도 21세기의 전략적 선택을 다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할 때인 것이다.

2007년의 경제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건전하지,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는지, 경기의 움직임은 과연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등의 문제를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보다 긴 안목으로 살펴보자는 것이다.

2. 짧아지는 경기순환 사이클

최근 실물경제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 경제의 경기순환 주기가 과거에 비해 짧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특히 2000년에 들어서면서 추세적으로 경기순환의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집계가 이루어진 1972년 이래 1998년까지 총 6차례의 경기순환을 경험한 우리 경제의 순환 주기는 평균 50개월로, 경기확장기가 31개월이고 수축기는 18개월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이런 패턴은 크게 바뀌었다(그림 1) 참조). 1998년 3/4분기 이후 2005년 1/4분기에 저점을 통과할 때까지 순환 주기가 짧은 세 차례의 소순환을 경험하였고, 이 기간의 평균 순환 주기는 27개월 정도이다.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물론 현재 진행 중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1〉 1970년대 이후 경기순환 사이클

인 경기 사이클도 이러한 추세와 별로 다르지 않다.

이처럼 경기순환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가 않다. 과거에는 수출증가→투자증가→고용증가→소비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수출경기가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을 구가하면서 활황을 지속하는 가운데에서도 투자와 고용, 내수는 부진을 면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IT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출의 산업연관효과가 약화된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IT산업 자체가 경기 사이클이 비교적 짧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 등으로 인해 가계소비의 위축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기의 버팀목이나 완충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이유이다. 소비가 경기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오히려 경기의 변동성을 더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경기국면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소순환 주기가 반복되곤 하는 것이다.

경기순환 주기가 짧아지면 경제주체들의 판단이 어려워진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경기를 예측하기도, 경기에 대응하기도 어려워진다. 자연히 기업과 가계의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되기 마련이다. 경기가 짧은 시기에 확장과 수축, 호황과 불황을 오가면 거시경제정책의 방향과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순환 주기가 불분명해지면 경제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대중적인 요법으로 대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경기의 빠른 순환 주기만을 부추길 뿐, 별다른 효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칫 경기의 확장국면보다 수축국면이 더 길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3. 2007년 경기

－ 짧은 순환속'上低下高'형 성장

앞에서 지적한 대로, 현재 진행 중인 경기 사이클도 소순환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2005년 1/4 분기를 저점으로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확장 국면을 지

속하였으나, 하반기들어 경기상승의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다시 완만하게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은 이러한 추세가 적어도 새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짧은 경기순환 하에서 완만한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한 우리 경제는 2007년 1/4분기 경에 경기가 저점에 도달한 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리라는 전망이 주류다.

2006년에 실현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대략 5.0%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새해의 성장전망치는 그리 밝지 못하다.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이 2007년의 성장률을 4~4.5% 수준으로 2006년보다 낮게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표 1) 참조). 다만 2006년의 '상고하저형' 성장의 기저효과로 인해 2007년에는 상반기에 4.0% 내외의 성장에 머물겠지만, 하반기에는 연간 5.0% 가까운 성장세를 회복함으로써 '상저하고형'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2) 참조). 현재 진행 중인 내수의 둔화세가 완

만하고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어 재고-출하순환으로 본 경기둔화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 근거이다.

〈표 1〉 국내외 기관의 2007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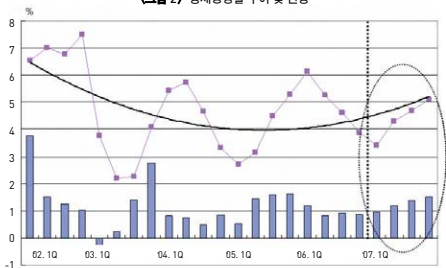
국내기관		해외기관	
한국은행	4.4%	세계은행	4.5%
한국개발연구원	4.3%	OECD	4.4%
삼성경제연구소	4.3%	씨티그룹	4.3%
현대경제연구원	4.2%	IMF	4.3%
금융연구원	4.2%	골드만삭스	4.0%
LG경제연구원	4.2%	도이체방크	4.0%

4. 2007년 경기

- 내수보다 수출이 성장 좌우

새해에는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어 올해에 비하여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그림 2〉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자료 : KJET

러나 여전히 성장의 진폭은 수출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내수의 성장기여율이 2006년의 36% 수준에서 2007년에는 42% 정도로 높아지고, 대신 수출의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지만 여전히 과반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인해 수출 호조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은 증가된 상황이다. 실제로 2007년 상반기까지는 선진국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수출 증가율도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수출은 OECD 경기선행지수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만일 원화 환율과 유가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반도체 경기의 호조가 이어진다면 연간 10% 내외의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에도 다소나마 희망적인 요소가 보인다. 재고율 하락, 기계수주 증가세 확대, 설비투자 압력 상승 등에 따라 설비투자 선행지표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설비투자의 추세 유지나 상승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과잉설비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설비가동률이 한계에 이룸에 따라 신규 설비투자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장기간의 수출호조에 따른 수출산업의 생산설비 부족과 원화 강세로 인한 수입자본재 가격의 하락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설비투자의 장기 순환국면을 보면 1990년대 순환변동치는 약 3~5년에 걸친 대순환이었으나, 2001년 하반기 이후에는 2년 이내의 소순환으로 변모하고 있다. 단기 순환국면으로 볼 때 설비투자는 일단 회복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추세가 지속

될 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설비투자의 추세적인 확대가 지속되면 투자→생산→고용→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의 회복도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기대해 본다. 하지만 설비투자를 제약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아 설비투자의 증가 성장을 견인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해외로 나가는 투자를 대체할 만한 국내 투자기회의 부족, 성장동력산업의 사업화 부진, 국내투자환경의 개선 미흡 등이 바로 그것이다.

5. 2007년 경기 - 소비의 완만한 증가 예상

내수의 또 다른 축인 민간소비는 소득 및 고용여건의 유지 및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3%대 후반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된다. 2006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 기대심리 하락, 불확 사태, 부동산가격 정책 등으로 민간소비의 증가가 다소 주춤했는데, 새해에도 큰 폭의 가계소비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제유가의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이 소비증가에 기여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 증가세 둔화, 높은 가계채무부담 및 조세성 지출의 증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2000년의 90% 수준에서 2005년에 144%까지 급증함으로써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진 데다, 최근 은행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새해에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의 2.4%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

망이다. 서비스 요금의 오름세 확대도 상승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유가의 안정에 힘입어 오히려 둔화될 것이라는 게 그 근거이다. 다만 공공요금의 동향과 그동안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던 집세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만일 새해 들어서 미국경제가 경착륙을 한다든지,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한다든지, 북핵시대가 악화된다면 물가도 성장도 투자도 당초의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른바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상존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물가의 안정 속에 이루어지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리라는 게 전망기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세계경제의 양호한 성장에 힘입어 수출이 건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도 완만하게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물론 그동안 잠재성장률 그 자체가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는다.

6. 새해의 과제

- 경제환경의 불안감 해소가 관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인 2007년에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환경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여건을 안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야 한다. 특히 2007년은 대선이 있는 해이므로, 자칫 정치논리에 경제가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이념적 담론이 난무할 것이고, 노사관계와 부동산 문제도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경제적 내실을 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리 경제의 경기순환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은 경제의 펀더멘털이 불안해지고 있거나 경제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기의 변동 폭을 완화하고 성장의 탄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기반을 견고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 및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완화하고,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장려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새해 경기가 '上低下高'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은 기업경영의 전략수립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기업들의 입장에서 상반기에는 내실경영에 주력하고,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에 대비하여 확대경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세계경기의 둔화, 가계 소비 둔화, 자금사정 악화 등 불안요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비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 내실경영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세계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제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 및 인력확충 등 확대 경영전략의 수립도 가능해 보인다.

7. 주류업계에 주는 시사점

경기전망은 거시적인 예측치를 산출해내고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새해에도 소비가 회복된다고는 해도 왕성할 것 같지는 않다. 기업의 전략은 미시적인 접근이다. 주류업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주류제품의 다양화는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히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주류업계의 입장에서는 제품간 경쟁에 이어 주종간 경쟁, 수입제품과의 경쟁 등으로 시장에서의 전선이 확대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유통망 개척, 물류망 정비 등의 방법을 통해 대처해 나가지만, 한정된 내수시장에서는 한계에 부딪치기 마련이다. 그 탈출구는 대략 세 가지이다.

첫째,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 내는 일은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요즘 낮은 도수의 소주가 출시되면서 소주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낮은 도수의 소주를 출시하기까지 관련 업계와 기업의 철저한 분석이 있었을 것이다. 즉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음주율도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기존 관행을 버리고 여성을 타겟으로 한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과학적이고도 철저히 분석한 결과이다.

둘째, 주류업계의 오랜 숙제인 문화적 결합도 마케팅 측면에서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더불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동반되는 시대가 도

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제조업의 물적 생산과 서비스가 동시에 공급되는 복합 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주류업계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이른바 보졸레 누보의 마케팅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단순히 와인을 제품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동시 출시 이벤트를 통한 축제와 fun의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급측면에서 '생산의 서비스화'와 수요측면에서 '소비의 서비스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0.5차의 복합산업 형태의 비즈니스가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적 요소가 가미된 2.5차 복합주류산업은 성숙 산업이 아니라 성장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

셋째, 국내 주류제품의 세계화 과제이다. 이미 국내의 주류업계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체질개선을 실시했고, 제조설비나 품질도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어차피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FTA를 체결하면 주류가 무관세로 수입되는 경우가 다반사일 텐데, 그렇게 되면 주류업계는 무한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주류업계가 세계시장을 겨냥하는 글로벌 전략을 통해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